

# 서울대 법대, 전과목 1등급 전남대 의예, 평균 1.2등급

■ (주)유웨이중앙교육 등급별 지원 배치표

조대 약학 1.7등급·광주교대 2등급

서울대 법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언어·수리·외국어·탐구 영역 등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시모집 가·나군에 있는 전남대의예과의 경우 언어·수리·외국어에서 1등급을 얻고 탐구 영역에서는 3개 중 1개는 1등급, 2개는 2등급을 받거나(평균 등급 1.17) 언어·수·외 중 1개가 2등이라면 탐구 영역은 모두 1등급을 받아야(평균 등급 1.25) 지원이 가능하다. <표>

입시전문기관 '(주)유웨이중앙교육'(www.uwayedu.com)이 20일 공개한 등급별 지원 가능 대학 배치표에 따르면 인문계열의 경우 평균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은 고려대(법과대학·경영대학)·연세대(경영계열) 등이다.

1.1등급은 고려대(정경대학)·성균관대(경영학·글로벌)로 나타났다. 1.2등급은 고려대(인문학부)·서강대(경영학부), 1.3등급은 연세대(법학계열·상경계열) 등으로 예측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 영어교육과와 국어교육과의 지원 가능 평균 등급이 1.7등급이었으며, 광주교대 초등교육학과는 2등급인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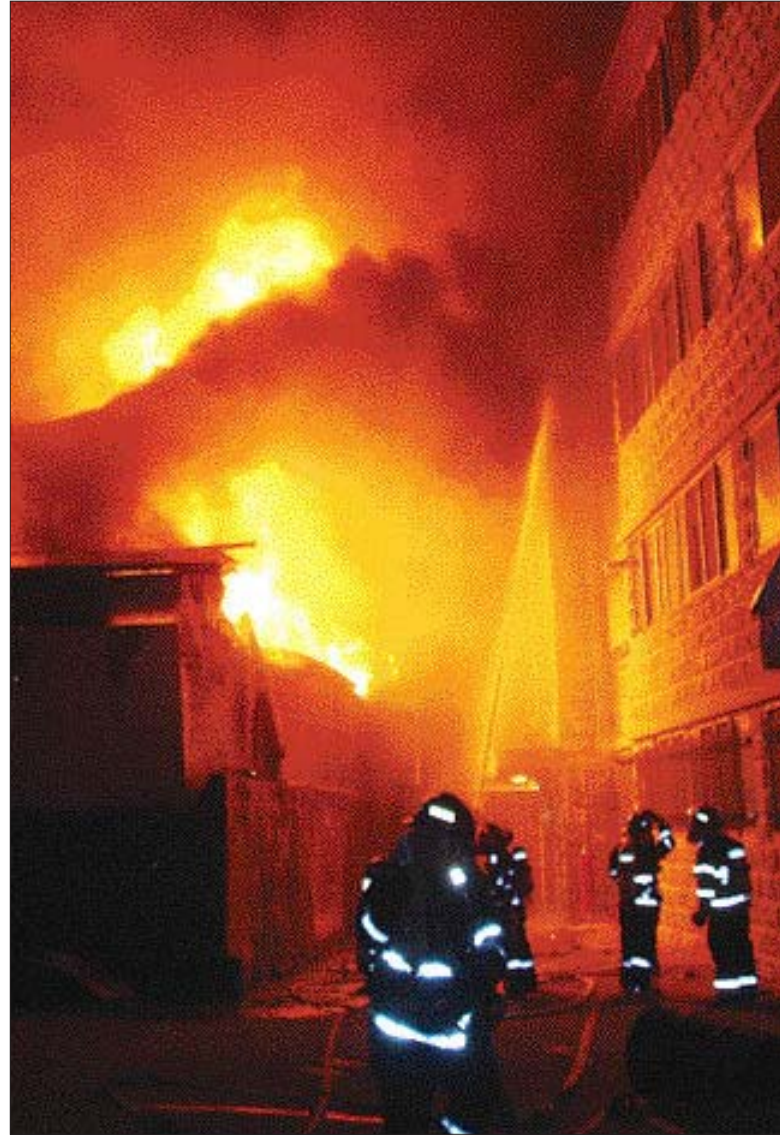
자연계열의 평균 1등급은 고려대·가톨릭대·연세대 등 의예과와 원광대·경희대 등의 한의예과에 지원 가능하다. 경원대 의대·서울대 약학대·

▲평균 등급=언어·수리·외국어·탐구(3과목) 영역 등 6개 과목에서 받은 등급의 평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언어·수리·외국어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고, 탐구 3개 중 2개에서 1등급, 1개는 2등급을 받았다면 평균이 1.08등급이다. 언어·수리·외국어 1등급에 1등급 1개, 2등급 2개라면 1.17등급이 된다. 인문계열 평균 등급이 1등급인 학생은 상위 0.53%로, 1천 689명이 해당된다.

우석대 한의예과·원광대 치의예과 등은 1.1등급이었다. 동신대 한의예과와 전남대 의예과는 1.2등급이며, 전남대 약학부는 1.5등급, 조선대 약화과는 1.7등급, 전남대 수의예과는 2등급인 경우에 지원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사는 "영역별 가중치를 꼼꼼하게 따져 자신이 잘 할 영역을 우선 고려해 지원 전략을 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시 2-2 전형이 끝나지 않은 곳도 있어 수능 가제점 점수를 잘 따져 정시에 넣을 것인지 수시에 넣을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주요대학 수능등급별 지원 가능권 <가제점 점수 기준>

평균등급	모집군	인문(언+수+외+사탐)	평균등급	모집군	자연(언+수+외+과탐)
1	가	고려대(법과대학, 경영대학), 연세대(경영계열)	1	가	가톨릭대(의예), 경희대(한의예), 고려대(의과대학)
	나	서울대(법과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계열, 국어교육, 인문계열1, 외국어교육계열)		나	서울대(의예)
1.1	가	고려대(정경대학), 연세대(인문홍보영상학부, 사회과학계열)	1.1	가	한양대(의예)
	나	서울대(사회교육계열, 인문계열2, 교육학부인문교육과, 인문계열3, 인문계열4, 성균관대(경영학(글로벌))		나	서울대(약학대학, 중앙대(의학부))
1.2	가	고려대(인문학부)	1.2	가	동신대(한의예), 전남대(의예)
	나	서강대(경영학부, 경제학부), 서울대(소신자유대학부, 동경제사학부), 성균관대(법학)		나	서울대(생명과학부,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
1.3	가	고려대(국제학부, 영어교육), 성균관대(법학), 연세대(법학계열, 상경계열)	1.3	가	서남대(의예), 성균관대(약학부)
	나	서강대(사회과학계, 커뮤니케이션학부), 성균관대(사회과학계열)		나	서울대(화학생명공학부, 건축학과건축전공)
1.4	가	고려대(국어교육, 역사교육), 연세대(외국어교육, 인문학부, 한양대(법학))	1.4	가	전남대(약학부)
	나	동국대(경찰행정), 서강대(법학계)		나	서울대(기계항공공학부, 수학교육, 물리천문학부, 수의예)
1.5	가	고려대(국제어문학부), 동국대(경찰행정, 이화여대(국어교육, 영어교육))	1.5	가	경희대(약학), 숙명여대(약학부)
	나	서강대(국제문학과), 국제문화계시, 한국외대(영어교육)		나	서울대(화학부, 재료공학부), 전남대(약학부)
1.6	가	한국외대(영문, 영어)	1.6	가	숙명여대(약학부), 원광대(약학)
	나	성균관대(인문과학계열), 이화여대(초등교육, 인문홍보영상학부)		나	고려대(생명과학계열학부), 연세대(생명과학계열), 연세대(공학부), 조선대(약학)
1.7	가	서강대(인문계, 한국외대(영문, 영어, 영어전공과))	1.7	가	서울대(생명과학계열, 간호대학)
	나	한국외대(중국어)		나	서울대(농생명공학계열, 간호대학)
1.8	가	전남대(국어교육, 국어교육), 한양대(경제금융학부, 영어영문)	1.8	가	고려대(기계공학부, 연세대(공학부), 원광대(약학), 조선대(약학))
	나	전남대(영어교육), 중앙대(경영학부), 경희대(관광학부), 한국외대(일본어, 자유전공학부)		나	서울대(농생명공학계열, 간호대학)
1.9	가	이화여대(사회과학부, 국제사우)	1.9	가	고려대(정보경영공학부, 이과대학)
	나	전남대(국어교육), 중앙대(법학, 경영계열)		나	서강대(기계공학계, 전자공학계, 한양대(정보통신학부))
2	가	경희대(법학부), 한국외대(경영학부)	2	가	고려대(전기전자공학부), 연세대(생물과학부)
	나	이화여대(국어교육, 특수교육, 인문과학부, 사회생활)		나	한양대(신소재공학부)
2	가	중앙대(영어영문, 심리, 교육)	2	가	전북대(수의예)
	나	경희대(경영학부, 회계세무학부), 한국외대(국제통상)		나	전남대(수의예)
2	가	광주교대(초등교육), 이화여대(유아교육)	2	가	제주대(수의예)
	나	중앙대(국어교육), 한국외대(정치외교, 국제통상, 법학)		나	전남대(수의예)
2	가	경희대(사회과학부), 인하대(아태를류학부)	2	가	전남대(수의예)
	나	경희대(사회과학부), 인하대(아태를류학부)		나	전남대(수의예)



소초동 약품 보관창고 화재 20일 새벽 0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초동 T화학상사 의약품 보관창고와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느라고 애쓰고 있으나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3시간이나 걸려 5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광산소방서 제공>

## 노숙자 명의 도용 아파트 매입 대출서류 위조 20억 가로채

법무사 사무장 등 둘 검거

확정일자(確定日字)를 받지 않은 세입자가 노숙 아파트를 매입한 후 불법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20일 광주시내 임대아파트 15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속여, 금융권에서 20여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법무사 사무장 송모(48)씨와 알선책 허모(여·62) 등 2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나머지 일당 10여 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2천만~3천만원의 돈을 주고 구매한 아파트를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꾸며 광주시내 농협과 신한 등 30여 곳에서 세대당 7천만~1억원까지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 세입자가 통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며, 금

▲확정일자(確定日字)=아파트를 임대한 세입자가 동사무소·공증인 사무소·법원 등을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에 일자를 날인받는 것. 확정일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안전한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입자는 재산상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원금 대출 담당자도 현지 실사를 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입자는 1인당 7천만~8천만원의 전세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몰렸다"며 "피해 규모가 훨씬 큰 것 같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나원침 (7363) 김중두



다들 권하하! 신발재! KCC

DS건설(주) KCC-최고, 연세, 고려대 대학

KCC방호, 시스텔방호 생산·시공

▶ 방호용 방화문 14~200cm ▶ 방화문 1000x2100~2400cm

(주)본드나리 KCC-신발재, 연세, 고려대 대학

실리콘·방수제·합착제·타이프

▶ 방수용 방화문 14~200cm ▶ 방화문 1000x2100~2400cm

중국 음식점 위장취업해 상습 절도

○중국 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상습적으로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달미.

○20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29·나주시)씨는 지난 8월3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S 중국집에서 현금 60여만원을 훔쳤으며, 지난 10월에도 광산구 송정동 Y 중국집에서도 20만원의 물대 가져갔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국 음식점들이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 두세달 정도 일한 뒤 그만두기 직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카운터를 뒤졌다고.

○김씨는 훔친 돈을 숙식비와 유혹비로 탕진했는데, 20일 광산구 한 PC방에서 또 다른 중국집 구인광고를 들여다보다 잠복 중인 경찰에 들통. /이민미기자 emlee@kwangju.co.kr

## 소흑산도 어선 침몰 2명 사망·2명 실종

거친 풍랑 속에서 조업하던 조기잡이 어선이 침몰,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지난 19일 밤 11시23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2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제주 선적 조기잡이 유자망 어선 299급 '707 윤정호'(선장 김모·49)가 중심을 잃고 뒤집히는 바람에 선원 12명이 바다에 빠졌다.

선원 중 8명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인 20일 새벽 2시30분께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과 해경에 의

해 구조됐으나, 옥모(37)·김모(35)씨 등 2명은 숨지고 소모(40)·김모(45)씨 등 2명이 실종됐다.

사고 당시 가거도 해역에는 초속 12~14m의 강한 바람과 3~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선장 김씨는 "바람이 거세 제주도 함양항으로 피항하려고 배를 돌리는 순간 전복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경비정 6척과 구난헬기 1대를 동원해 실종자들을 찾고 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 기아차 취업 사기 40대 영장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기아자동차 취직을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전(前) 기아차 협력업체 사장 공모(40)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신모(40)씨의 처남이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을 알고 "기아차 생산직 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절대·인사비를 달라"고 속여 2천2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필 : 902-0100

"만약엔 더위풍 판매되는 물건입니다."

# 콘택 골드

## 골드로 늦기전에!

초기감기는 시간과의 싸움 감기는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걸렸구나 생각되면 콘택골드! 감기는 초기에, 늦기전에 콘택골드입니다.

**초기 감기약 - 콘택골드**

독한영 3배비 성분일 080-020-1188(주)유한양행 광주 (06)932-5400 (주) 103(주)유한 402627-0833 부산 (051)62-4870